

# 광주시교육청, 검정고시

##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다양한 공연과 축하 속 합격증서 받아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10일 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합격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합격증서를 수여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의 한결같은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오늘, 여러분의 뒤에서 다음 발걸음을 재촉

하는 분들의 위대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해 감동을 더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의미있는 도전과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다"면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에 닿을 것 같지 않던 합격에 대한 희망을 성취로써 손에 쥔 여러분이 대표적인 본보기이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 합격생 가족들과

함께 시교육청 교직원, 광주·전남 검정고시 동문회 박해성 회장님과 동문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그룹 스왈로우 등이 진행한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합격증서 수여, 교육감 격려사, 검정고시 동문회장 축사, 축하공연,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 교육감은 격려사 도중 최고령 합격자 2명을 직접 호명했으며 교육청 직원과 내빈들은 크나큰 박수를 보냈다. 최고령 합격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웃음으로 감사를 표했다.

올해 제2회 검정고시는 1224명이 응시하고 863명이 합격해 70.51%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초졸 검정고시 3명, 고졸 검정고시 5명 등 총 8명이 전과목 만점으로 합격했으며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48명, 장애우 8명도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조인호 기자

## 바람직한 학생자치문화 우리가 만들래요

화순교육지원청, 지역학생연합회워크숍 개최

화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화순지역 중학교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치회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군산 지역에서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019 지역학생 연합회 워크숍'은 지난 3월에 실시한 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역사의식 고취와 조화로움 학교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등 근대역사유적 현장 답사를 통해 일제에 의연하게 저항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갖은 필박 속에 살아야 했던 민중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과 치유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자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학기 학교 내 자치활동



을 돌아보고 2학기 각 학교에서 실시할 자치활동 계획 세우기를 통해 학생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최원식 교육장은 "학생회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학생회가 앞장서서 오고 싶은 학교가 되고 생각이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음악회 개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달 31일 개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올해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음악회를 10월 31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며, 오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음악회는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민족적 차별교육과 식민지교육에 반

항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음악행사로 추진된다.

참가대상은 광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개인 또는 단체(학생 문화예술동아리)의 자율적인 참가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7-8팀의 참가공연팀을 확정하고 1부는 경연형식으로, 2부는 학생문화에

술단체 초청 특별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부분은 음악 전 부문(독창, 독주, 앙상블, 실내악 등), 방송댄스, 밴드, 오케스트라, 연극, 합주, 풍물 등이며, 경연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상품(도서문화상품권)이 수여되고, 공연 참가자에게는 참가경비와 4시간 이내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참가신청 및 접수는 학교에 안내한 공문을 참고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 신청으로 가능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062-221-5532)로 문의하면 된다.

## 구례 배움의 공동체, 교실 수업 개선 연수

구례교육지원청 '구례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는 지난 10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주제로 구례 배움의 공동체 교실 수업 개선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첫날 10일에는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관외(곡성, 광양, 순천) 유·초·중·고 100여명의 교사들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의 필요성',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상황', '수업 디자인 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수업 영상을 비교 분석하거나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활동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수업 입상의 방법을 직·간접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구례 배움의 공동체의 두 번째 연수는 오는 26일에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수업 입상과 수업디자인을 주제로 토의·토론과 실습 중심의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전남교육청, 초등 과정중심평가 안착 총력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평가를 지필고사 중심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역량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9 초등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2학기 첫 연수는 지난 4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으며, 연말

까지 10개 교육지원청 582명의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2학기 연수는 상반기의 장양점(長養點)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연수방법의 효율성, 연수과정의 적절성을 보완해 더 알차고 진전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관성 속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정중심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엮어나가는 전문성 신장과 배움중심 수업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 교육지원청 874명의 초등교원이 직무연수를 이수했다.

연수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연수 내용의 현장 활용도 등 6개 항목의 평균 점수 ' 좋음' 이상이 98%로 연수생 대부분이 직무연수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과정중심평가 실습 위주의 연수 운영 △모든 활동 시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적극적인 지원 △실습 결과에 대한 강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장양점으로 분석됐다.

## 순천대, 중학생들의 '꿈제작소' 운영



순천대학교는 최근 순천대학교 일원에서 육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2019학년도 꿈제작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꿈 제작소'는 전남지역 중학생들에게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순천대 고유 진로·전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다.

이날 육과중학교 3학년 학생 67명은 조경학전공, 간호학과, 사회체육학과, 전기공학전공, 사회교육과 등을 방문해 학교 소개, 전공관련 작품관람 및 실습, 학과체험, 교수와의 만남, 재학생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